

지방의 선택! 희망2007 대선 전국 민심 기행

광주·전남, 영남, 강원, 제주

“범여권 뭉쳐야제” “한나라 이번에는...”

광주·전남 “당회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 원래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했는데...”

부산·경남 부산은 ‘한나라당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한나라당의 텃세가 강한 곳이다.

대구·경북 한나라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대구·경북의 대선민심은 이명박 후보에 쏠려 있거나 경선에서 제기됐던 여러가지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탓인지

강원도 역대 대선에서 강원도의 표심은 한나라당 후보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기는 했으나 큰 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호남 민심은 여전히 광범 중이었다. 대선이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열기와 관심은 제감하기 어려울 정도다.

때문에 대선을 향한 민심이 한나라당으로 치우친 건 필연적 현상. 특히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대한 반발 심리와 참여정부에 대한 반감이 중첩되면서 ‘변화’를 찾는 정서가 광범위하게 깔려 있다.

주요 정당의 각 대선 후보가 확정돼 본격적인 세싸움에 들어간지 꽤 시간이 흘렀으나 대구에서는 한나라당 독주체제에 큰 변화가 없는 듯하다.

아직은 이명박 독주 정동영과 30% 격차

박 후보 46.3%로 30%이상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범여권 후보 단일화 여부에 따라 지지율 격차는 현재보다 좁혀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정동영 ‘쏠림’ 현상 아직은... 이명박 두 자릿수 지지율 유지

“참여정부서 나아진 것 전혀 없어 경제 제대로 살릴 후보 짝을 것”

“지난 정권들 대구 철저히 버렸다” 한나라 쏠림 과거 대선보다 심화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3.5%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화운동과 경제개발 과정의 나후, 소외로 인해 공고하게 구축됐던 반(反) 한나라당 정서도 엿어지는 추세다.

라는 민심도 상존한다.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여온 경남지역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도를 재현하고 있다.

다. 지난 대선 때 현정권을 믿었지만 역시나 옳다”면서 “이번 대선에는 꼭 한나라당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대선레이스에서 제주는 상징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택시기사 김수훈(55)씨는 “경제와 정치간 전문성을 놓고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속내 감춘 냉랭한 민심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정치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하지만 똑부러지게 지지 입장을 밝히는 승객들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제16대 대통령 선거운동 막바지인 지난 2002년 12월 1일 부산역광장에 모인 부산 시민들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거리연설회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Advertisement for the 2012 Water Festival (2012어수세계박람회) with a night view of a city and festival grounds. Text includes '열러라! 2012어수세계박람회 펼쳐라! 미래강국, 해양대국의 꿈' and logos for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sponsors.